

지역 中企 담보 부족·보증 잔액 없어도 '설 자금' 대출 받는다

신보·기보, 업체당 최고 3억 보증... 光銀도 1,000억 규모 지원

경기침체 여파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 잔액이 소진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도 은행권의 '설 자금 대출'을 쓸 수 있게 됐다.

11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호남영양본부는 다음달 말까지 자금난 악화에다 설 명절 자금수요까지 겹쳐 유동성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설 긴급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설 긴급자금 보증은 기존 보증 잔액에 관계없이 한도를 특별로 우대하고, 심사방법 완화 및 영업점장 전결 취급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설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10억원으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16개 은행들도 이번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 총 9조원의 설 자금을 쏟아.

은행별로는 산업은행(2조원), 우리은행(1조원), 기업은행(1조원), 신한은행(8천억원), 외환은행(8천억원), 국민은행(7천500억원), 농협(6천억원), 하나은행(5천억원) 등이다.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이자비용, 노무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과 결제

성 여신 등에 금리가 0.5%포인트 낮은 3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입키로 했다. 설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실시한 할인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결제성 여신에 대해선 대출 이자를 이틀간 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설 특별자금 수요가 많으면 당초 목표보다 많은 1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이 심화돼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이번 설 전후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이 지원되면 임금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쏘울타고 고향 가세요!” 기아차는 총 1천220명의 고객들에게 오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4박5일간 쏘울, 로체, 포르테 시승기회를 제공한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들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기아자동차 제공)

“올 광산업 19~21% 성장”

LED 시장 확대 등 호재

세계적인 불황에도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올해 성장률이 19~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광산업은 앞서 지난해 3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1일 “국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시장에서 광산업은 6~8%대 성장에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19~21%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산업진흥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생산·내수·수출 등 국내 경제 실물지표의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기기

시장의 확대, FTTH(Fiber To The Home·광가입자망) 관련부품업체의 수출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 등 호재가 많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 광산업은 지난해 1조3천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보다 38.5% 증가했다. 올해 광주 광산업 매출액은 1조 6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광산업 업체도 지난 2007년보다 80%가 늘어난 18개사에 달했고 10억~50억원 미만 업체도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99곳으로 집계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이 추가돼 총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전 동의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문의 (1588-4020)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시, C&重 협력사에 50억 융자

목포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C&중공업 협력업체에 5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 달 이상 끌어 온 C&중공업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실사작업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목포시는 11일 워크아웃 결정에도 자금결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C&중공업으로 인해 출도산 위기에 처한 목포지역 협력업체들을 위해 긴급자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으로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금리는 시중은행과 업체간 협약에 따르되 목포시가 5%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1년간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16일까지 목포시청 투자홍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C&중공업에 대한 실사작업이 C&중공업과 주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인 실사비용 3억원에 대한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되고 있다.

C&중공업은 실사 전 계약금을 일부 걸고 실사 일정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낼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삼일회계법인이나 채권단은 실사 차질을 우려해 실사 개시 전 비용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銀 외환 수출입 20억불 달성

광주은행이 외국환 업무 개시 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20억 달러의 수출입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1980년 외국환 업무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수출·입 업체의 신용장 개설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20억 달러의 수출입 실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입 실적의 70% 가량은 신용장 개설이며 나머지는 송금 방식 등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환영업부를 광주로 이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수출입 업무를 강화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실적은 전년 대비 57% 급증한 5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 무역금융 예로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 무역업체가

지난해 전년대비 57% 급증 외환 업무 개시이후 최대

겪고 있는 수출입 관련 예로사항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광주은행이 수출입 무역금융 부문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무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로또복권 (제319회)			팝콘복권 (제14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5 8 22 28 33 42	37		1	5억	1조 965074
			2	1억	1조 404035
			3	3조	3조 476977
			4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각조 95569
			6	2천	각조 3938
			7	1천	각조 15
					각조 52
					각조 32
					각조 4
					각조 9
					각조 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52) 227-9970

매일밤 8시부터 화려한 성인 쇼쇼쇼!!

국민가수 인순이

부킹/서비스 만족도 1위 **상무나이트**

1월 14일(수) 단독출연!!